

##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II)

이 경 아\* · 전 혜 정\*\*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초빙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The Style of Romanticism on Fashion(II)

Kyung-Ah Lee\* · Hei-Jung Chun\*\*

Invited Lecture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4. 7. 13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19th Century's romanticism fashion i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and to investigate their relationship.

The materials for study of Post-modern fashion after the 1990s a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Gap Collections」.

The characteristics of romanticism such as sensuality, ornamentation, exoticism and mingler, which were demonstrated in the previous study, are analyzed as follows in the modern fashion.

- Sensuality was represented by exaggerating the human body with silhouette of past romantic fashion, making the human body mysterious with see-through material including romantic patterns and ornaments, and emphasizing human body line using thin drape-like materials.
- Ornamentation was created by combining skills brought from the past with newly developed techniques and materials so that it provides gorgeousness.
- Exoticism was expressed in more diverse exotic patterns, colors, accessories and details because of accelerated internationalization.
- Mingler was achieved by using materials which does not seem to be suitable for romanticism, and mixing of contrastive or heterogeneous patterns and materials. It was caused by the scientific development and trend of respecting diversity.

Romanticism increases the diversity and possibility of new point of views in fashion. It also shows the desires to seek inner peace adopting images of different periods and culture.

Key words: sensuality(관능성), ornamentation(장식성), exoticism(이국성), mingler(혼용성)

#### I. 서론

로맨티시즘은 형식보다는 정신에 우위성을 부여하는 사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예술의 창작과정

에 있어서도 개성과 자유로움을 증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로맨틱시즘은 18세기 말에 시작되었으나 현대에서도 특정한 양식을 지칭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로맨틱시즘은 감

성과 정열 같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강조하며 강화되고 있다. 순수한 기능과 기술에 의한 형식주의와 폐쇄적, 베타적 성향에 의한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모더니즘을 거부하며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삶과 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렸으며, 다원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로맨틱시즘적인 감성과 육체는 중요한 테마로 다루어지고 있다.<sup>1)</sup> 따라서 복식에 있어서도 로맨틱시즘은 과학에 대한 회의, 혼란한 사회질서, 심각한 환경오염,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과 소외감을 경험한 현대인들의 마음의 풍요와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 1편에서 과거 로맨틱시즘의 발생 배경 및 그 당시의 사상과 문학, 예술 작품의 고찰을 통하여 로맨틱시즘 양식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19세기 복식에 나타난 로맨틱시즘 양식을 고찰하였다. 로맨틱시즘은 혁명과 계몽주의에 의해 조성된 전통과 권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생겨났다. 따라서 로맨틱시즘은 개성과 자유로움을 중요시하고, 감정을 존중하였으며, 현실과 환경에 불만을 품고 먼 세계와 과거를 동경하였다. 이러한 내적 의미가 발달된 재료, 기술과 결합되어져 회화, 조각, 건축을 통해서 관능성, 장식성, 이국성, 혼용성이라는 외적 형식으로 분류되어졌다.

제 2편에서는 19세기에 나타난 로맨틱시즘 복식 양식의 특성이 현대 패션에서는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현대 로맨틱시즘 복식과 19세기 로맨틱시즘 복식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복식이 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구조와 이데올로기, 기술을 반영하는 문화적 집합체임을 재확인시켜 주며, 로맨틱시즘 복식을 재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디자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연구 방법은 파리, 런던, 밀란, 도쿄, 뉴욕의 세계 5대 패션쇼 작품들을 선정하여 수록한 「Gap Collections」지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던 복식에 나타난 로맨틱시즘 양식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대 복식의 로맨틱시즘 양식을 분석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대에 재현된 로맨틱시즘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를 20세기 전체로 두지 않고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한 20세기 후반부로 한정하였다. 20세기 초반기를 지배했던 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두 개의 커다란

문화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사고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라는 시기를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경부터로 한정하고, 로맨틱시즘 양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1990년대 이후의 복식을 고찰하였다. 이는 복식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이 1980년대부터 커다란 조류를 이루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거듭되었고, 미래 패션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패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 II. 현대 로맨틱시즘의 발생 배경

20세기 초반 모더니즘의 합리성과 철저한 기능적 논리는 과학기술을 크게 발달시켰다. 이러한 결과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환경은 파괴되었고, 기능제일주의 사고가 팽배하여 인간성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제 2차 세계대전 후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모더니즘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일련의 사조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후기 산업 사회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논리적 계승과 발전인 동시에 비판적 반작용과 단절로써 등장하였다. 이는 서양 중심의 국제화, 획일화 및 단순화, 기계화 그리고 역사나 전통을 무시하는 시대사조인 모더니즘에 반산업주의적 특성을 덧붙인 다국적 자본주의의 대표적 산물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모더니즘의 반동 개념은 서구미학사상을 이루어 온 양극화 이론에 대입시킬 수 있다. 즉 모더니즘을 이성과 과학과 고전주의에, 포스트모더니즘을 감정과 예술과 로맨틱시즘에 대입시키는 것이다. 1872년 니체(Nietzsche)는 「비극의 탄생(Die Geburt der Tragödie)」에서 감성을 중요시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 사유체계의 발현자로서 간주되고 있다.<sup>2)</sup> 그는 인간의 두 상태, 즉 꿈과 도취 속에서 실존의 환희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스의 두 예술 신 중 하나인 아폴로는 인간의 꿈의 표상을 상징하는 신으로 '꿈과의 유희'를 통해 보다 높은 진리와 완전성을 얻게 되는 것임에 반해, 디오니소스는 '도취와의 유희'로써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의 표출과 그로 인한 기쁨과 쾌락과 아픔을 느끼는 존재라 하였다.<sup>3)</sup> 디오니소스는 세계이념을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의 정열적인 측면을 가리

키는 반면, 아폴로는 표상으로써의 세계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규율적이며 논리적이고, 형식부여적 원리를 가리킨다.<sup>4)</sup>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마력하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결합이 다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대립되고, 억압된 자연이 인간과 다시금 화해의 제전을 축하하게 되며 삶의 역동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세계 구성의 두 요소인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는 대립되면서도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통합적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플라톤이래 서양 철학사에서 육체와 감성은 정신과 이성적 진리를 위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 즉 '영혼의 감옥' 정도로 비하되어 지면서, 사회질서와 사회안정을 위하여 아폴로를 디오니소스 위에 위치해 놓았다.<sup>5)</sup>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같은 이성중심 사상은 20세기 모더니즘의 형이상학의 주된 핵심이었으며, 정신을 중시하고 육체를 가법계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는 서구 20세기 초반 모더니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로맨틱시즘은 아폴로적인 성질들-평온, 질서, 로고스(logos)적인 것, 지성, 이성-보다는, 디오니소스적인 성질들 -활기, 강렬함, 의기 양양, 파토스(pathos)적인 것, 직관, 감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 이성을 신뢰한 형이상학에 반동적으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 이러한 로맨틱시즘적인 감성과 육체는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로맨틱시즘은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더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며 강화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컴퓨터기술과 통신수단의 발달, 경제여건의 향상, 매스컴의 발달과 특히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하여 고도의 전자 시대를 맞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 안에서, 세계화가 가속화되어지면서 민족 정체성이 상실됨과 동시에, 세계화 과정에 대한 저항으로 새로운 민족적, 지역적 정체성이 등장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에 의존함과 동시에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화와 동질화에 반대하며, 기존의 고정 관념이 아닌 다원화되고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자 한다. 이렇듯 '다양성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화두를 내세우는 로맨틱시즘<sup>6)</sup>은 다양성과 복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탈 획일화, 탈 규격

화, 개성 추구의 경향을 지닌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절대로 간과되어질 수 없는 중요한 시대사조라 할 수 있다.

### Ⅲ. 현대 로맨틱시즘 복식의 미적 특성

과거의 전통과 결별한 모더니즘 복식은 이성중심으로 변화해가는 사회를 배경으로, 활동적이며 편리한 기능적 복식과, 장식성이 배제되고 엄격한 비례에 의하여 전체적인 통일감을 중시한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복식을 유행시켰다. 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명확한 경계를 파괴하고 서로간의 움직임이 가능한 역동성을 지닌 불연속적이고 가역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는 포스트모더니즘 복식은 과거에서 현대, 에스닉한 것에서 현대적인 것에 이르는 모든 것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실용성과 모던함의 강조로 삭막해진 현대인들에게 환상과 낭만을 가져다주는 복식은 지나간 세계에 대한 향수뿐만 아니라 기계화된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패션 평론가들과 현재 활동 중인 패션 디자이너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사상인 다원성이 계속하여 패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뉴 밀레니엄 패션의 특성 중 하나로 로맨틱하면서 신비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예견하였다.<sup>7)</sup> 이는 과학에 대한 회의, 혼란한 사회질서, 심각한 환경오염,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과 소외감을 경험한 현대인들이 복식을 통해 마음의 풍요와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를 찾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부각된 로맨틱시즘 복식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디올(Christian Dior)이 발표한 뉴룩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디올이 보여준 뉴룩은 전쟁 중에 남성화되었던 복장에서 엘레강스를 불러일으켜,<sup>8)</sup> 여성들을 매우 로맨틱하고 극단적인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변모시켰다.<sup>9)</sup> 코르셋으로 조여 맨 가는 허리와 등글게 곡선을 살린 가슴과 엉덩이는 작은 꽃무늬 모자와 하이힐, 단추 구멍이나 손수건과 조화시킨 화려한 색깔의 장갑, 구두 및 가방과 같은 색조의 길고 가는 우산 그리고 두개 혹은 네개의 진주 목걸이와 조화를 이루었다. 디너 가운은 바디스와 스커트에 서로 다른 소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연보라색 새틴 바디스에 노란 격자무늬 타프타 스커트를 대조시키는 이러한 방법은 로맨틱시즘 시대로의 회귀를

암시하였다.<sup>10)</sup> 디올의 뉴욕을 시발점으로 여성적인 실루엣을 가진 로맨틱한 복식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채택되어 전 세계 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뉴욕 이후 기능적인 영 패션이 강세를 보이던 1960년대에도 그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드레스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찾아 볼 수 있다. 초기의 열정과 활기가 가라앉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은 만연하는 물질주의와 냉소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생활방법을 전개하기를 원했으며, 히피의 영향으로 마약 투입이 놀랍게 증가했고, 신비교 숭배와 동양의 종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와 오시 클라크(Ossie Clark), 빌 깁(Bill Gibb) 같은 영국 디자이너들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로맨틱시즘 룩을 선보였다. 특히 잔드라 로즈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패턴이 들어 있는 파스텔 색조의 실크 드레스(그림 1)에서 보여지는 디테일들은 복식을 더욱더 환상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아플리케와 퀴팅, 좁은 주름, 파이핑, 술장식, 꽃과 구슬장식 등 수공예적인 디테일들은 문양의 특성을 살려주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창조하였다. 그녀는 과거의 역사적인 의상과 텍스타일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것들과,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서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에는 하위 패션에서 뉴 로맨틱시즘이라는 스타일이 발생되어 패션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뉴 로맨틱시즘<sup>11)</sup>은 넓게는 핑크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그들의 차림은 반 핑크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핑크의 단정치 못함을 우아함으로, 저속함을 고귀함으로, 캐주얼한 차림을 성장 차림으로 대신하였다. 핑크 패션과 달리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직물과, 우아함, 아름답게 차려입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뉴 로맨틱시즘 복식은 역사주의적인 요소가 결합되면서 하이 패션의 디자이너들에게 채택되어 더욱더 매혹적으로 발달하였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말콤 맥라렌(Malcom McLaren)과 함께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의 퇴폐적인 의상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을 거쳐 1981년 3월에 '해적(Pirate)' 컬렉션을 통해 뉴 로맨틱시즘 의상을 하이 패션에 끌어 올렸다. 그것은 화려하고 로맨틱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와 함께, 이국적인 테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2>는 '해적' 컬렉션에 소개되었던 작품으로 과거의 복식 형태와 더불어 소매에서 보여지는 불규칙한 곡선 문양은 아프리카의 목

판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sup>12)</sup> 뉴 로맨틱시즘 복식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역사주의적인 요소들과 이국적인 요소들은 현대복식에 신비성과 낭만성을 부여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역사주의적이고 이국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1980년대에 나타난 선정적인 스타일은 로맨틱시즘 복식을 가속화시켰다. 선정적인 패션은 여성의 인체를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여성 인체의 해방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의 페미니즘 복식이 여성성을 거부하거나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선정적 스타일은 시스루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를 노출하거나, 코르셋과 페티코트, 스트레치성 소재로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기법으로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는 이러한 복식들은 기능적인 면보다는 관능적인 욕구를 드러내면서 여성성을 강하게 강조하였다.

로맨티시즘 양식의 많은 기반을 마련해준 1980년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성과 이국성은 복식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창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역사주의는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없다는 사고 아래, 역사라는 외적 조형성을 차용해 도입과 절충을 통하여 의복에서 미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The Culture of Fashion」의 저자 크리스토퍼 브리워드(Christopher Breward)는 20세기 후반 쿠티르(couture)와 기성복 디자인의 가장 흥미 있는 특징 중 하나로, 본래의 의미와 내용을 분리시키고 동시에 현대와 연결시키면서 과거의 복식사를 참고하여 창조적인 재능으로 그려내는 자기 참고적인 특성이라고 했다.<sup>13)</sup> 따라서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은 역사적인 복식 양식, 특히 유럽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의상의 이미지를 나름대로 소화하여 현대에서 화려하고 로맨틱한 패션을 등장시키고 있다.

18, 19세기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는 크리스티앙 라크루와(Christian Lacroix)는 1998년 3월 「보그」지에서 "나의 드레스의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것, 즉 과거의 문화로부터 온 것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새롭게 발명하지 않는다"<sup>14)</sup>라고 하며, 자신의 많은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역사 참고적인 특성을 설명하였다. 로맨틱시즘의 굳건한 신봉자이며 역사가이자 실험가로, 소재와 형태에 열광하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역사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으로 여성들을 동화 속 공주로 만들면서,<sup>15)</sup> 역사 속의 서구 서양복식 스타일을 갈리아노식 금세기 낭만으로 풀어

내는 디자이너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패션에 사용된 디테일들을 첨가하여 예전의 로맨스를 보여주는<sup>16)</sup>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그의 많은 작품들 속에서 화려하고 로맨틱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을 불러 일으켰다.

이국적인 복식도 현대의 대량생산에 의한 동질화와 획일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과, 과학문명이 가져온 인위적인 혜택과 발전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동양을 단지 취미와 흥미의 대상으로, 또 지배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 보던 과거와는 달리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면서 동양적인 요소들을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가져다주는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양적이거나 아프리카적인 색채나 문양은 현대 서양복식에 있어 신비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자인의 시인인 로미오 지글리(Romeo Gigli)는 다른 사람들이 "성(sex)"과 "성공"을 추구하는 동안에 로맨틱시즘적인 꽃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로, 에스닉한 문양들이 특징을 이루는 컬렉션들을 위한 영감을 중국이나 이집트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여행에서 찾았다.<sup>17)</sup> 지글리의 오리엔탈리즘은 그의 동양에 대한 정통한 관심, 그의 사적이고 문학적인 여행, 그리고 서양 이외의 여성들에게 투영되어진 미묘한 여성성에 대한 감각의 브리콜라지(bricolage)이다.<sup>18)</sup> 이 외에도 존 갈리아노를 비롯하여 많은 디



〈그림 2〉 Vivienne Westwood, The 'Pirate' Collections, 81 · 82 A/W, 'Vivienne Westwood', p. 33.

자이너들이 비서구권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문양이나 직물, 색채 등을 통해 현대복식에서 신비주의적인 로맨틱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의 막다른 단계에서 출현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패션에서 장식성이 강조된 로맨틱시즘 복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여성성이 강하게 강조되는 스타일로써 새로운 재질, 발달된 기술, 이국적인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기계화된 현대사회에 반하여 신비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 1. 관능성

여성의 아름다운 인체 곡선을 표현하고자 하는 관능성은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 개념에서 벗어나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정하면서, 여성 인체의 해방을 주장하며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사고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인체를 무시하는 전위적 패션이나 극단적인 페미니즘 영향에 따른 여성복의 남성화에 반작용으로, 과거 역사 속에서 여성의 곡선적인 인체를 강조하는 형태를 현대에서 재해석하여 남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써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으로써 사용하고 있다.

1986년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지난 10년간 역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여성복의 어깨 패드와 타이트



〈그림 1〉 Zandra Rhodes, Little Nell modeling Butterfly, 1975, 'The Art of Zandra Rhodes', p. 138.



〈그림 3〉 Vivienne Westwood, 가슴과  
힙을 과장한 슈트, 95·96 A/W,  
『Vivienne Westwood』, p. 59.



〈그림 4〉 Romeo Gigli, 플라운스를  
이용해 곡선미를 강조한 드레스,  
01 S/S, 『Gap Collections』, p. 352.



〈그림 5〉 John Galliano, 드레이프성이  
강한 소재로 여성의 곡선을 드러낸  
드레스, 95·96 A/W, 『Gap  
Collections』, p. 51.

한 힙이 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보다 여성다운 형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여성스러운 방법 내에서 강해지길 원한다”<sup>19)</sup>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작품에서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 은유하기 위해서 양극성과 역사적 복식 등을 이용해 오고 있다. 존 갈리아노도 여성을 성적이고 여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sup>20)</sup> 복식의 형태에 있어서 성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역사적인 실루엣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8, 19세기의 유희를 숭배하는<sup>21)</sup> 비비안 웨스트우드도 그의 많은 작품들 안에서 여성의 인체 곡선을 강조하는 다양한 복식들을 선보이고 있다. 1994년 ‘카페 사회(Cafe Society)’ 컬렉션에서는 집시풍의 블라우스, 라피아 짚으로 만든 페티코트를 받쳐입은 주황과 노랑의 이중색을 지닌 타프타로 만들어진 웅장한 전원풍의 드레스를 선보였다. 1995년 ‘성적인 부위들(Erotic Zones)’ 컬렉션과 1995년 ‘매춘부 만세(Vive la Cocotte)’ 컬렉션에서는 덧댄 케이지에 의해 여성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실루엣을 창조하였다. 〈그림 3〉은 패드된 가슴과 덧댄 케이지가 있는 속옷을 착용하고 붉은색 캐시미어로 된 슈트를

착용함으로써, 가슴과 힙을 부풀려 과장하여 여성의 곡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실루엣은 18세기의 천박함과 유희에서 영감을 얻은 1996년 ‘여성들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 잘 모른다(Les Femmes ne connaissent pas toute leur coquetterie)’ 컬렉션과 1997년 ‘사소한 것들의 만세(Vive la Bagatelle)’ 컬렉션에서 어깨와 가슴 부분을 많이 노출시키면서, 허리와 힙을 강조하는 형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과거복식에서 보여지는 인위적인 ‘X’자형 실루엣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는 로맨틱한 문양이나 장식이 부가된 비치는 소재로 인체 곡선을 강조하기도 한다. 인체의 움직임과 빛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가진 비치는 소재는 가슴과 허리 등의 여성의 우아한 곡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나 보이게 하여 복식을 환상적으로 느껴지게 하며, 아름다운 인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로맨틱한 문양이나 장식과 결합된 얇은 비치는 직물이나 레이스, 니트, 망사 등은 로맨틱시즘 복식에서 노출과 은폐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인체의 우아한 굴곡미를 강조해주고 있다. 〈그림 4〉는 플라운스를 이용해 곡선미를 강조한 드레스이다. 투명하게 비치는 시폰이나 오간자, 레이스 등으로 플라운스, 프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물결치듯 구불거리는 곡선미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여

성의 관능적인 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다.<sup>22)</sup> 이러한 유기적인 율동감을 가진 곡선은 복식에 로맨틱시즘을 부가시키는 디테일로 작용함과 동시에 관능성을 표현하는 요소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또한 로맨틱시즘적인 요소들과 결합된 얇고 드레이프성이 강한 소재들은 인체에 흘러내려 그 곡선을 드러냄으로써 복식에 관능적인 미를 표현해 주고 있다<그림 5>.

## 2. 장식성

20세기의 커다란 조형 미학중 하나인 모던함은 쓸데없는 장식을 전부 제거하고 매사에 단순함을 지향하면서 복잡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한때 강하게 어필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모던함이 주는 차가움과 단단함, 냉정함, 빈틈없는 표현들에 의한 획일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감성은 다시금 장식을 강조하고 있다. 스티븐 코너(Steven Connor)는 모더니즘에서 탈피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예측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장식과 치장을 이야기하였는데,<sup>23)</sup> 패션에 있어서 이러한 장식의 발달은 여성미를 더욱 강조시키면서 꿈과 환상을 가져다주고 있다.

현대 로맨틱시즘 복식의 장식성은 환상적인 색채와 조직을 가진 다양한 재질들과 역사주의적인 복

식을 모방한 디테일 및 트리밍의 기법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복식에 로맨틱시즘적인 사고가 팽배했음은 소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다채로운 색채와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많은 재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에 충분하다.

꽃과 꽃잎을 모티브로한 임마누엘 응가로(Emanuel Ungaro)의 <그림 6>은 무엇보다도 환상적이면서 우아하게 혼합된 색채가 복식에 장식적인 표현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손으로 채색한 듯한 다양한 색채들과 꽃잎 문양은 입체적으로 덧붙여진 조화의 배경이 되어 작품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또한 발달된 풍부한 소재들이 로맨틱시즘 복식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실의 얽힘이나 조합에 의해 은은히 비쳐 보이는 반투명 소재인 레이스는 과거에는 그 사용범위가 언더웨어나 복식의 부분 디테일에 한정되었으나 오늘날은 복식의 주소재로 사용되면서 낭만성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재료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7>은 표면에 비즈와 스팅글 등이 부착되고 문양을 기모로 독특하게 처리한 소재에 의해 장식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작품에서 소재는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로맨틱시즘을 강하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과거에 비해 발달된 다양한 색채와 재질을 지닌 재료들은 현대복식에서



192  
<그림 6> Emanuel Ungaro, 손으로 채색한 듯한 우아한 색채를 지닌 드레스, 01 S/S, 'Gap Collections', p. 191.



<그림 7> Trend Les Copains, 비즈와 기모로 문양을 처리한 소재로 제작된 드레스, 02·03 A/W, 'Fashion Show', p. 399.



<그림 8> Christian Lacroix, 루프, 조화, 보석 등으로 장식된 화려한 드레스, 95 S/S, 'Haute Couture Collections', p. 14.

로맨티시즘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로맨틱시즘 복식의 장식성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디테일 및 트리밍의 사용이다. 현대 로맨틱시즘 복식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디테일과 트리밍들은 복식에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느낌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은 디테일과 색채, 소재 모든 면에서 우아하고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크리스티앙 라크루아의 작품으로, 가는 주름이 잡힌 연한 노란색의 스커트와 루프, 작은 조화, 흔들리는 보석 등으로 장식된 화려한 의상이다. 라크루아는 페치워크, 브로케이드, 모피, 레이스, 민속적인 프린트와 자수, 그리고 금자수 등 의상에 값비싼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쿠튀르 예술의 중심인 전통적 수공의 부활을 옹호하는 이러한 화려한 의상들은 역사적인 의상을 현대적인 특색으로 바꾸려는 그의 열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는 과거의 복식에 매력을 더해주는 루시(ruches), 플리즈(pleats), 프릴(frills), 핀턱(pintucks), 오버랩핑(overlappings), 인서션(insertions)과 색채 등에서 보여지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비범한 기술과 정교한 솜씨를 참고하여 수정, 발전시켰다.<sup>24)</sup> 이처럼 로맨틱한 재질과 디테일들이 뒤섞인 의상은 과도하게 장식된 목걸이와 머리와 어깨의 털장식, 그리고 앞이마에 늘어뜨린 페로니에르(ferronière) 등의 액세서리와 함께 더욱 장식적으로 표현되었다.

### 3. 이국성

대량생산에 의한 동질화, 획일화에 염증을 느끼며, 과학문명의 급진적인 발달이 가져온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게 된 시점에서 등장한 로맨틱시즘 복식은 비서구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표출하는 동양복식과 때묻지 않은 원시성을 간직한 아프리카지역의 복식에서 영감을 얻어 환상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보편적 문명의 추구라는 미명 아래 무시되었던 이국성은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가 풍요로운 융합을 이루는 시대를 맞이하여 상실했던 로맨틱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97 S/S와 97-98 A/W의 존 갈리아노는 디올의 컬렉션에서 이국취미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97 S/S 컬렉션에서는 자수와 태슬(tassel), 털장식을 이용하여 중국취미를 표현하였다.<sup>25)</sup> 동양적인 색채와 태슬장식, 자수 기법으로 수 놓여진 꽃 문양 등이 서구적인 드레스와 접목되어 신비스러우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다. 97-98 A/W에서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요부의 이미지를 중국풍으로 표현하였다. 동양적인 실크뿐만 아니라 앙고라와 점 문양이 있는 직물 등 다양한 소재들로 된 치파오(chipao) 형태의 드레스들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양산과 부채, 매듭이 달린 모자 등을 함께 선보였다. 색채에 있어서도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금색을 매치시킨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으며, 동양적인 새나 꽃 문양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9>는 강렬한 붉은색의 만다린 칼라가 부착된 치파오형 드레스에 레이스를 첨가시켜 로맨틱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중국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기는 드레스는 금색 액세서리와 머리에 장식된 붉은색 꽃의 대조로 더욱 이국적으로 표현되었다. 같은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품들은 이집트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써 매우 관능적이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다. 부드럽고 드레이프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 곡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카울넥 드레스나 플라운스 드레스에 금빛 액세서리와 이집트풍의 가발을 매치시켰다. 또한 이집트를 나타내는 문양이 들어간 바다 페인팅과 같은 효과를 내는 얇은 바다 슈트 위에 플라운스가 달린 붉은색 비치는 드레스를 덧입혀 여성의 인체 곡선을 강조하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존 갈리아노는 이러한 작품들에서 이국성과 관능적인 여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여성만이 가진 아름다움을 로맨틱한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로맨티시즘 복식의 이국성은 형태적인 측면보다는 색채와 문양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현대복식에서 인체의 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동양 복식의 형태를 모방하거나 재해석한 의복들은 관능성이 결여되거나 아방가르드한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인체 곡선을 강조할 수 있는 형태에 신비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동양적인 색채를 지닌 재질이나 문양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97 S/S 컬렉션에서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양이 그려진 드레스들을 선보였다. 사군자 중 하나인 매화 문양과 용 문양, 잉어 문양들은 비치는 소재와 결합되어 신비적인 동양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2001-2002 A/W에서는 임마누엘 옹가로가 일본의 이미지를 로맨틱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기모노를 입은 일본 사람들이 프린트 된 얇은 직물의 드레스와 매화가 그려진 직물로 만든 상의의 한쪽 어깨에 나비를 단 의상 등으로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10>에서는





〈그림 9〉 Christian Dior, 중국적인 디테일과 레이스가 결합된 치파오형 드레스, 97·98 A/W, 「Gap Collections」, p. 37.



〈그림 10〉 Emanuel Ungaro, 우키요에를 연상시키는 문양이 있는 스커트와 매화가 부착된 상의로 구성된 의상, 01·02 A/W, 「Gap Collections」, p. 307.



〈그림 11〉 Christian Dior, 아프리카 장신구에서 영감을 얻은 드레스, 97 S/S, 「Fifty Years of Fashion」, p. 307.

우키요에<sup>26)</sup>를 연상케 하는 기모노를 입은 일본 사람들이 프린트된 직물로 만들어진 스커트와 상의에 일본을 상징하는 매화를 입체적으로 부착하였다.

이 밖에도 서양문화에 물들지 않은 아프리카지역의 문양이나 장신구가 로맨틱시즘 복식과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존 갈리아노가 디올의 컬렉션에서 선보인 드레스 〈그림 11〉은 마사이족의 화려한 색 조합을 지닌 구슬장식을 쿠티르와 접목시켰다. 무지개 색으로 짠 코르셋과 아프리카풍으로 섬세하게 디자인된 목걸이는 꽃무늬가 들어있는 스커트와 함께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있다.

#### 4. 혼용성

다원주의적 사상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오늘날, 패션에 있어서도 독특한 감성과 테크놀러지를 통해 다양한 혼용과 의도적인 부조화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첨단 신소재의 출현은 전통적 소재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로맨틱시즘 패션을 구성할 수 있는 풍부한 재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대 로맨틱시즘 복식에서는 과거보다 더 다양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소재와 색채, 문

양을 혼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재에 있어서도 비치는 직물과 비치지 않은 직물의 결합뿐만 아니라 비치는 직물을 두 세겹으로 결합시키거나, 다양한 문양이나 색채 조직을 지닌 직물들을 혼용함으로써 독특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 2001-2002 A/W의 디올 컬렉션에서는 여러가지 소재를 혼용한 로맨틱 복식이 다양하게 선보였는데, 여러가지 문양이 있는 불투명한 직물과 망사, 레이스, 비닐 소재 등을 하나의 복식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혼용하였다. 〈그림 12〉는 꽃무늬 직물과 레이스가 결합된 스커트 위로 금색과 은색 줄로 장식된 시폰이 겹쳐져 있고, 상의에는 비닐과 레이스 직물이 사용되어짐으로써 각기 다른 색채와 조직, 문양이 한 복식 안에 어우러져 있다. 빅토리오 앤 루치노(Victorio & Luccino)도 2001 S/S 컬렉션에서 얇은 직물들을 다양하게 사용한 로맨틱시즘 복식을 선보였다. 목 부분에 다채로운 색실이 비쳐 보이는 얇은 소재를 사용하고, 문양이 들어간 레이스와 꽃무늬 직물, 시폰 등을 혼용한 드레스는 각기 다른 부드러운 색채와 문양들이 혼용되어 신비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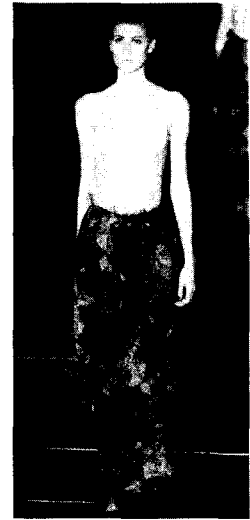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고를 지닌 현대 디자



〈그림 12〉 Christian Dior, 다양한 색채 · 조직 · 문양을 결합시킨 드레스, 01 · 02 A/W, 「Gap Collections」, p. 48.



〈그림 13〉 Jean Paul Gaultier, 가죽과 망사 소재가 결합된 드레스, 98 S/S, 「Jean Paul Gaultier」, p. 139.



〈그림 14〉 Giorgio Armani, 화려한 그물 조직의 상의와 꽃무늬 시폰 스커트를 매치시킨 의상, 02 S/S, 「Fashion Show」, p. 406.

〈표 1〉 현대 로맨티시즘 복식의 미적 특성

내용 형식	관능성	장식성	이국성	혼용성
특징	여성의 아름다운 인체 곡선을 육감적으로 표현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표현	기술발달에 따른 다양한 소재 · 색채 · 문양의 결합
형태	인체 곡선을 과장하거나, 그대로 드러내는 형태			
색채	화려하고 우아한 색채, 색채의 투명성과 불투명성 활용	화려하고 환상적인 선명한 색채, 손으로 그린 듯한 채색법	동양이나 아프리카 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채	다양한 느낌의 풍부한 색채
문양 및 재질	로맨틱한 문양이나 장식이 첨가된 시스루 · 드레이프성이 있는 재질	여러 종류의 레이스 · 비즈 · 스팅글이 부착된 직물, 화려한 문양이 첨가된 소재	동방의 전통적인 문양이나 이국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는 문양	대조적이거나 이질적인 다양한 느낌의 문양과 재질
기법	인체 곡선을 강조하거나 드러냄	재질 표면에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신비스럽고 화려한 문양 장식	이국적인 문양 · 액세서리 · 디테일이 부분적으로 결합	대조적이거나 이질적인 문양 · 소재 결합, 모던한 느낌의 신소재 결합
트리밍	유기적인 울동감을 형성하는 플라운스 · 프릴	과거복식에서 수정되고 발전된 루시 · 러플 · 턱 · 리본 · 레이스 등의 트리밍	이국적인 느낌을 가중시켜 줄 수 있는 상징물 · 장식 사용	소재 · 색채 · 문양의 혼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트리밍을 부가하지 않음

이러들은 로맨틱시즘 복식에 서로 대조적이고 이질적인 소재를 결합시키거나 획기적인 소재들을 과감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로맨틱한 이브닝 드레스에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가죽과 망사 소재를 결합시켰다(그림 13). 2001-2002 A/W 컬렉션에서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도 가죽으로 된 관능적인 상의에 스팅글이 화려하게 달린 스커트를 매치시켰다. 또한 가죽 외에도 스웨이드 소재의 스커트에 스팅글이나 비즈가 달린 비치는 상의를 연출시키거나, 반짝이는 은사와 비즈가 첨가된 그물조직으로 구성된 화려한 상의에 꽃무늬 있는 시폰 드레스를 매치시켜 화려하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그림 14). 현대복식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소재들을 로맨틱 패션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소재의 발달과 더불어 복식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사고의 폭이 매우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4가지 미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현대 로맨틱 양식의 복식을 디자인 요소에 따라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 IV. 현대 로맨틱시즘 복식과 19세기 로맨틱시즘 복식의 관계성

복식은 인체를 기점으로 출발된 조형물으로써, 인간의 삶과 연결 고리를 함께 하며 각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 1편에서 문화가 가지는 공통된 특성을 바탕으로 19세기에 출현한 로맨틱시즘 양식의 특성을 규명하고 제 2편에서 이를 현대복식에 적용시켰다. 그 결과 20세기 복식에서는 19세기 로맨틱시즘 양식의 특성들이 현대의 변화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며 나타났다.

첫째, 여성의 아름다운 인체 곡선을 육감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관능성은, 성적인 부위의 과장이나 노출을 통해 나타난다. 19세기에는 귀족적인 우아함과 호화로움을 가져다주는 곡선적인 'X'자형 실루엣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성적인 부위를 심하게 과장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소재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인체를 통한 관능성의 표현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로맨틱한 문양이나 장식이 부가된 비치는 소재로 인체의 아름다운 곡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거나, 얇고 드레이프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 곡선을 그대로 강조함으로써, 과거복식의 재현에서 보여지는 과장된 실루엣뿐만

아니라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들이 나타났다.

둘째, 로맨틱시즘 복식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특성인 장식성은 19세기 복식에서는 화려하고도 다채로운 색채와 재질 그리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의상에 부과시키는 디테일과 트리밍의 사용, 귀족적인 우아함을 표현한 액세서리의 착용 등에서 나타난다. 이는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주는 로맨틱시즘 복식의 외형적 특성으로, 특히 현대복식에 있어서는 과거에서 차용된 장식적인 기법과, 발달된 새로운 기술과 재료가 결합되어 19세기 복식과는 다른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셋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표현해주는 이국성은 19세기 복식에서는 인도, 이집트, 페르시아 등 동방세계에서 들여온 아이템이나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복식에 이국적인 소재와 문양을 사용함으로써 표현되었다. 현대복식에서는 가속화된 세계화에 의해 과거보다 더 다양한 민족들의 복식 요소에서 발췌한 이국적인 문양, 색채, 액세서리, 디테일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고도의 과학문명에 의해 주도되는 서양문명으로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 풍요를 비서구의 전통사상과 문화에서 찾으려는 경향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넷째, 다양한 결합에 의해 나타나는 혼용성은 19세기 로맨틱시즘 복식에서는 직물산업과 염색공업의 기계화에 따른 기술발달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느낌의 풍부한 색채와 문양, 재료가 하나의 복식 안에서 대조·융합되어 나타났다. 이는 기술 향상에 따른 실험정신과 그 시대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로맨틱시즘 사조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현대복식에서도 이러한 혼용성은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사조에 힘입어 대조적이거나 이질적인 다양한 느낌의 문양과 재질을 결합하거나, 로맨틱시즘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를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써 표현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본 결과, 로맨틱시즘 복식의 관능성은 19세기와 20세기에 있어 그 표현방법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복식이 인체의 성적인 부위의 노출과 과장을 통해 극단적인 'X'자 형태만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복식에서는 인위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문양이나 장식이 부가된 다양한 소재를 통해 인체를 노출, 은폐시켜 여성의 인체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태도 취하고 있다. 과장된 복식의 형태미가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인

체의 관능미를 표현한다면, 소재에 의해 인체선이 드러나는 형태는 간접적으로 인체를 노출시켜 아름다운 인체를 긍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는 오늘날 발달된 다양한 재료와 함께 복식의 주제적 입장에 선 여성이 자신의 인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사고와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추구하는 경향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장식성은 19세기와 20세기 로맨틱시즘 복식에 있어서 모두 강하게 부각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로맨틱시즘 복식의 장식성은 복식의 외관에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창출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에 비해 형태적인 측면이 간소화된 현대복식에 있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다양한 색채와 재질, 디테일과 트리밍, 액세서리 등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즈와 스팅글이 부착된 직물, 여러 종류의 레이스, 그리고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여 신비스럽고도 화려한 문양을 첨가시킨 소재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복식을 환상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장식성과 함께 복식의 외관을 신비롭고 환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이국성은 19세기 복식에 비해 현대복식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폐쇄적, 배타적 성향에 의한 엄격한 합리주의를 지향했던 전 시대의 모더니즘 사조와는 달리 삶과 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원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복식에서도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시대, 다른 문화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9세기에 비해 그 지역에 대한 범위가 확대된 현대복식의 이국성은 소재나 색채, 문양의 차원을 넘어서 형태와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부각되고 있으나, 로맨틱시즘 복식의 이국성은 관능적인 형태에 부가된 동양적인 색채를 지닌 재질이나 문양, 액세서리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로맨티시즘 복식의 혼용성도 19세기 복식에 비해 현대복식에서 주요한 특성으로 부각된다. 진보된 첨단 과학기술과 그것이 만들어 낸 다양한 신소재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복식의 혼용성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달에 의존하고 있는 19세기의 혼용성보다 월등하게 나타난다. 또한 19세기에는 자유로운 실험정신에 의해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창출해 냈던 것과는 달리, 현대복식에서 보여지는 혼용성은 획일성을 부정하고 취향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만연된 시대사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복식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욱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 V. 결론

현대 패션에서 재창출되어진 로맨틱시즘 양식의 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능성은 소재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인체 곡선을 강조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인위적인 'X'자형 실루엣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문양이나 장식이 부가된 비치는 소재로 인체를 노출시켜 아름다운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거나, 얇고 드레이프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 곡선 자체를 강조하는 형태로 여성의 곡선미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 장식성은 과거에서 차용된 장식적인 기법과, 발전된 새로운 기술과 재료들이 결합되어 19세기 복식과는 또 다른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셋째, 이국성은 가속화된 세계화에 의해, 과거보다 그 지역적인 범위가 확대되면서,<sup>27)</sup> 더욱더 다양해진 이국적인 소재와 문양, 액세서리 등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고도의 과학문명에 의해 주도되는 서양문명으로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 필요를 비서구의 전통사상과 문화에서 찾으려는 경향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특성이다. 넷째, 혼용성은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사조에 힘입어 다채로운 소재와 문양, 색채의 결합이나, 로맨틱시즘과는 거리가 먼 소재의 사용에서 표현되고 있다.

로맨티시즘 복식의 네 가지 특성을 종합해 본 결과, 관능성은 19세기와 20세기에 있어 그 표현방법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복식이 극단적인 'X'자 형태만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복식에서는 인위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문양이나 장식이 부가된 다양한 소재를 통해 인체를 노출, 은폐시켜 여성의 인체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태도 취하고 있다. 이는 발달된 다양한 재료와 함께 인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추구하는 경향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다.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장식성은 19세기와 20세기 로맨틱시즘 복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외형적 특성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형태적인 측면이 간소화된 현대복식에 있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다양한 색채와 재질, 디테일과 트리밍, 액세서리 등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즈와 스팅글이 부착된 직물, 여러



위가 확대되었다. 근래 들어 유럽인의 지리적 의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범위는 더욱더 넓어져 인도와 중국, 한국, 일본까지를 포함하는 근동·중동·극동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4),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한국 브리태니커, p. 152.